

[실버]

컴퓨터, 두려워 말고 일단 켜세요



그곳에 아들·딸·손주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내친구' 이메일 보내는 노인들 '아들' 생일에 이메일로 축하편지를 보내...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에 사는 박옥순(70여)씨는 매주 수요일이면 인근 대면 원원리 원음교회로 달려간다. 서울 사는 공무원 딸에게 이메일을 보낼 욕심에서다. 박씨는 석달 전 만해도 이메일은 커녕 컴퓨터 자체를 몰랐다.

KT전남본부 IT서포터즈는 지난 7월부터 원음교회에서 '실버 인터넷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철수를 남긴 12명의 '백발 학생'들에게 컴퓨터 기본 조작과 타자, 인터넷을 교육하고 있다.

자란 17일 오전 11시30분, 아들딸들 '짧은 선생'의 가르침대로 '백발의 학생'들은 '독소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아들·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중이다.

"처음엔 마우스가 뭘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 건지조차 모르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독소리 타법으로 이메일을 보낼 정도가 됐죠."

'IT 세상' 우리도 즐긴다 ② 인터넷 속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 들어선 용기마저 시들어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두드러지 않고서 문이 저절로 열려간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서울 딸에 이메일 보냈더니 "정말 엄마가 쓴거야" 감동

3년만에 인터넷 과거시험 장원 "손자뻘 연령층과 소통"

IT서포터즈 조광모 과정은 한 분 한 분 마우스에 손을 같이 올려놓고 반복하길 수십 번, 마침내 멀리 있는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고 하는 '백발의 제자'를 모습에 대견하다.

"서울 사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단 건 어떨었어. 놀랍고 즐겁겠소. 아마 그 딸은 회사 동료들에게 시골 엄마에게서 이메일 받았단 자랑했을 거예요." 실제 조 과정은 박씨의 딸에게서 고맙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전남대신정은 이들 '백발의 학생'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 가정으로 '사망의 PC' 1대씩을 보내주기로 했다.

◇"이젠 돌려줘야죠" 어르신 IT 봉사단 "외국에 나간 손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정말 할아버지가 쓰신거야'라는 답장을 받았으며 흥분할 때 가장 흐뭇합니다."

광주시 동구 KT 광주정보통신센터 2층 정보교육장에서 노인 동료들을 상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르치는 구성주(68·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의 광주전남지부 총무국장)씨는 수강자들이 신세대와 소통에 성공하고 기뻐할 때가 가장 보람된다.

2005년 공무원 퇴직후 민가 보람된 일을 해 보고자 시작한 '어르신 IT 봉사' 활동이 벌써 4년째, 구씨에게서 배운 제자들만 수 천명이다. 그들 중엔 인터넷 과거시험을 치러 당당히 장원급제한 제자도 있고, 홈페이지나 동영상 UCC 등 고난도의 IT기술을 척척 펼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주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대상을 차지한 윤창준(69)씨도 그들 중 한명. "노인정에서 화투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시작했다"는 윤씨는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은 젊은이 못지 않고 지금은 포토샵·동영상 제작 과정을 배우고 있다.

윤씨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손자뻘되는 연령층과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돼 마음과 몸이 젊어지는 것 같다"면서 "멋진 IT 실버가 돼 e-세상에 만나자"고 컴퓨터 교육을 권했다.

어르신 IT봉사단은 행정안전부 소속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등록된 199명의 자원봉사자 33개팀이 전국의 경로당, 노인교실, 마을회관 등을 돌면서 한 해에 약 3천명의 어르신에게 정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광주·전남지부와 목포지회, 동산대중문화복지관, 인애사회복지관 등 4곳에서 20명씩 활동하고 있다.

문의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의 광주·전남지부 (062)228-130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버 라운지



주리애

"낮 동안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아십니까? 탁아소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낮 동안 돌보아드리는 곳이 표현하자면 '탁노소' 개념이다.

"아침에 등교하고 오후에 하교 하니까 노인학교에 다니는 기분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면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은데, 이곳에 다니면 하루가 빨리 가고 낮에도 가족처럼 옆에서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몸도 덜 아프고 천국 같아요"

광주 동구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주야간보호센터를 가려켜 하시는 말씀들이

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과 저녁 동안 시설(제거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할 필요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 및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을 운행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주야간보호센터에 나와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체조, 종이접기,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아시나요

다. 급격한 경제성장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대부분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며 일상생활 능력이나 가정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해가족화와 평균가족 원 수가 감소하는 소가족 현상과 여성들의 취업활동 참여 등으로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능력이 약화되어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낮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해 지난 1991년부터 국민기초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일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심히 허약한 노

고 있어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훈련, 투약관리, 건강 상담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 건강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병든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는 노인 부양가족들이 낮 동안 만이라도 부모님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가족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한국의 정서에도 맞는 노인부양서비스가 아닌가 싶다.

아직도 많은 노인부양가족들 가운데 주야간보호센터가 주변에 없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2008년 8월 현재 광주에 34곳, 전남에 46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병든 부모님 저녁식사를 챙겨드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낮에도 돌봐드리고 저녁식사와 함께 야간에 돌봐드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적극 활용해 봄이 어떨까 싶다.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실생활 IT, 안방서 쉽게 배워요"

KT-실버TV 프로그램 제작

KT와 실버TV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IT 교육프로그램인 '원더풀 IT 세상'을 공동 제작해 케이블 채널과 스카이라이프(ch.534), 메가TV를 통해서 방영한다.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에 따르면 '원더풀 IT 세상'은 실버TV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방영되고, 메가TV에서는 '홈쇼핑'→'취업/자격증'→'쉽게 배우는 IT' 메뉴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KT의 IT서포터즈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넷 이용법, 휴대전화 활용법, 디지털카메라 사용법, 문서 작성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재미있게 알려줘 노년층이나 어린이 등 IT 취약계층의 기초 교육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KT전남본부 관계자는 "IPTV를 통해 IT 소외계층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공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ung Law Firm (대중법률(주)). Includes contact info (T. 062)229-9900, 010-3619-1214) and a detailed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Yeosu, Gwangju, and Mokp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ion Korea).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66-8446) and a detailed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Mokpo, and Yeosu.